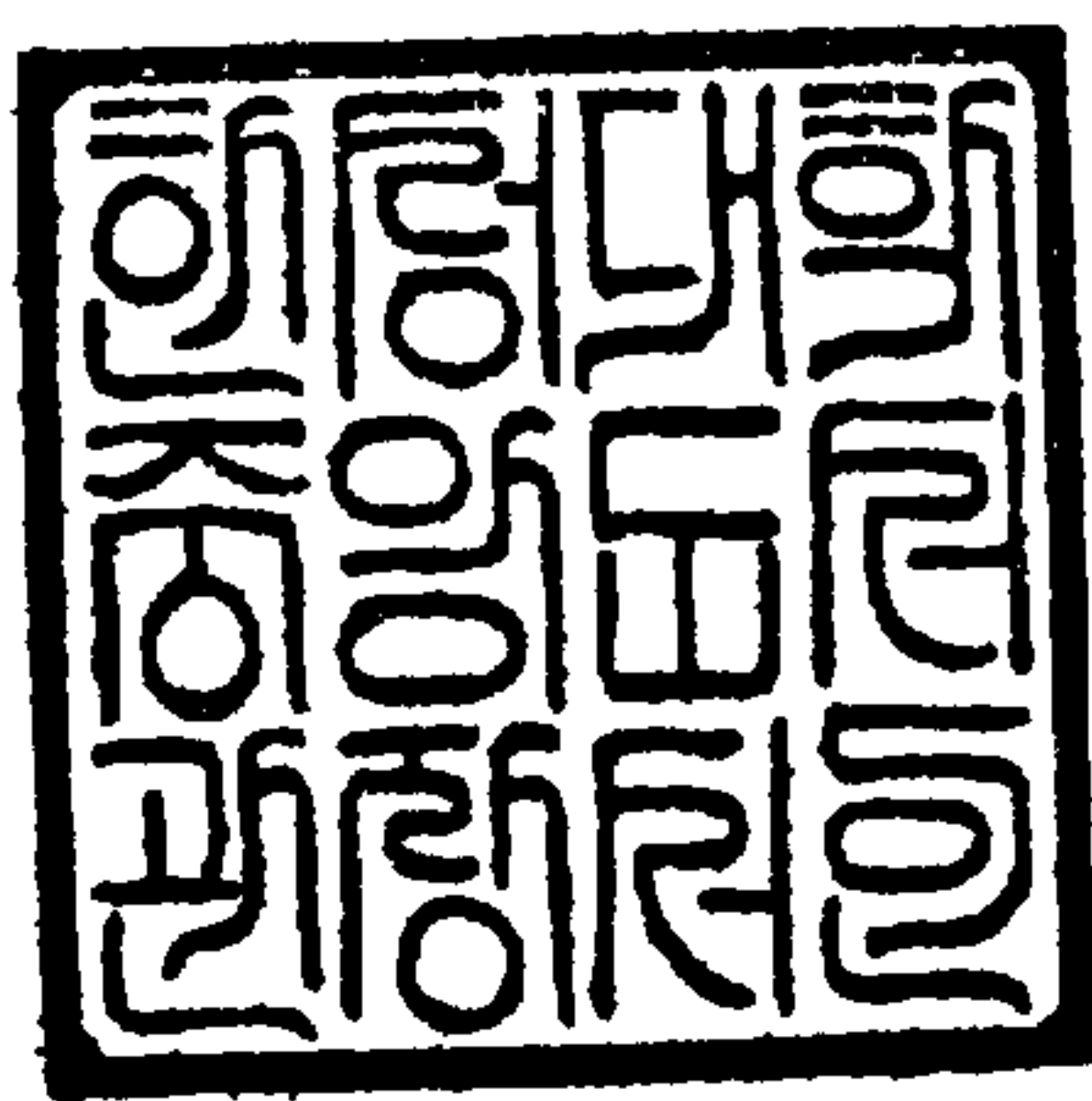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進出
方案에 관한 研究



1995年 6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經營 管理 專攻

金 亨 默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劉 丙 鎬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進出 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Launching Strategies of Direct
Investments to China by Korean Enterprises

1995年 6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經 營 管 理 專 攻

金 亨 默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劉 丙 鎬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進出 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Launching Strategies of Direct
Investments to China by Korean Enterprises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6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經 營 管 理 專 攻

金 亨 默

金亨默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1995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해외직접투자 이론	3
제1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3
제2절 대중국 직접투자 동기 및 이론	6
제3장 중국경제 현황과 우리나라의 투자실태	12
제1절 중국의 지역경제발전 정책	12
제2절 중국의 외자도입현황과 외자유치정책	24
제3절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 및 문제점	38
제4장 대중국 투자사례 분석	47
제1절 S봉제업체 투자사례	47
제2절 S사 컬러TV 합작공장 투자사례	50
제3절 투자사례 분석결과의 시사점	55
제5장 대중국 투자진출 확대방안	63
제1절 대중국투자의 기본전략	63
제2절 대중국투자의 단계적 전략	65
제6장 요약 및 결론	70
참고문헌	74
ABSTRACT	76

표 목 차

<표 II- 1> 해외투자의 국민경제적 예상효과	5
<표 III- 1> 중국의 지역별 국민소득 · 공업 총생산액 연평균 증가율	16
<표 III- 2> 동 · 중 · 서부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 · 공업 총생산액 비교	17
<표 III- 3> 중국의 외자이용 현황	25
<표 III- 4>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6
<표 III- 5> 국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28
<표 III- 6> 중국의 외자유치 중점항목	34
<표 III- 7> 중국의 투자금지 및 제한업종	36
<표 III- 8>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	39
<표 III- 9>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중 대중국투자 비중	40
<표 III-10> 우리나라의 권역별 대중국 투자현황	41
<표 III-11>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허가기준)	42
<표 III-12> 한국기업의 대중국 제조업분야 투자	4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중국은 무역에 있어서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급속히 증가되어 1990년 37건에 불과하던 직접투자가 1994년 269건에 달하게 되어 한국기업의 제1투자 대상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은 소위 '전방위 개방정책'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의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GNP를 1980년 불변가격 기준의 4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아래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가장 큰 잠재수요의 시장국이며, 저임금 노동력 공급처이고, 풍부한 원료자원국이다. 또한 지리적·문화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 거주하는 200만명의 한국민족의 존재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적이며 다방면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비교우위전환과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지역경제의 불력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조적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비교하여 요소부존상태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적 보완도가 높으며 또한 중국과의 공식적인 한중 경제교류는 무역, 직접투자, 기술도입 및 이전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이론 중 대중국 투자이론을 검토하고 둘째, 중국의 경제현황과 외자도입정책을 살펴보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세째,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중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에 있어서 전략을 기본전략과 단계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記述的 研究方法論으로서 과거에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해외투자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중국에 적합한 해외투자이론을 제시하고 중국경제정책 및 투자정책, 외자정책 등 중국경제개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 대중국 투자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 그리고 확대방안을 분석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해외직접투자와 대중국 직접투자 동기 및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고 제3장에서는 중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자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은 대중국 투자사례 분석으로서 중소기업이면서 노동집약적 기업인 S봉제업체와 대기업이면서 첨단산업체인 S사 컬러TV 합작공장 투자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대중국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기본전략과 단계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제6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중국에 진출해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해외직접투자법인과 중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지기업과의 경영비교 분석 및 구체적인 해외진출기업의 기업운영시 나타나는 문제점 등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2개 업체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만을 이용했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이론

제1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단순히 배당금, 이자 및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증권을 취득하는 해외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혹은 foreign indirect investment)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투자가가 해외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지칭한다.

투자동기에 근거한 위 구분은 실제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는 일정비율(보통 10~25%) 이상의 지분보유를 수반하는 해외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간주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외에도 국가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대부, 해외지사 설치, 해외부동산 보유 등을 해외직접투자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관하여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 바, 그 동기는 ① 원료 및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② 해외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③ 수출 장애요인 회피방안의 일환으로, 즉 관세 및 각종 수입규제로 인해 위축된 수출의 대체방안으로 ④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⑤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⑥ 외국원조보다는 국내고용의 증대 및 기술이전효과를 수반하는 차관을 선호하는 후진국의 노력에 부응하여 ⑦ 국내에서 사양단계에 있는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함으로써 제품의 수명과 이윤을 재순

환(recycling)시키기 위하여 ⑧ 효율적 기업경영방안으로, 즉 진출대상국의 저항 감소로 판매 및 시장확보가 용이해지며, 운송비 등 제반경비가 절약되는 등의 마케팅상의 이유, 저임금과 원자재의 활용을 위한 생산상의 이유, 그리고 현지차입이 가능하며 각종 세제혜택 또한 가능한 재정면에서의 이유 등에 근거한 보다 효과적인 기업운영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¹⁾

위에서 설명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거시경제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바,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하여는 Findlay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한 연구들이 있다.²⁾

해외직접투자의 거시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우선 선발개도국에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 및 국내지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증가 등으로 비교우위가 위협받거나 상실되었을 경우 후발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킴으로써 비교우위를 보강하고 국내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후진국과 같이 재정금융정책이 고도로 발달되지 못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로 인하여 소득 및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후발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간의 협력관계도 증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역업, 제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개척 및 확보에도 큰 효과를 미치게 되며, 광업 등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자원개발 및 확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해외투자의 국민경제적 예상효과

해외투자는 국내 총가용자원 중 일부를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내투자에 비하여 고용 및 관련산업 연

주: 1) 김기태, 이종원, 김철환,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박영사, 1992, p.519.

2) 김주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실태분석과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관효과가 작은 편이다.

무역수지효과에 있어서는 해외생산으로 인한 본국의 수출대체 및 역수입에 따른 負의 효과 뿐만 아니라 보호장벽의 극복을 통한 수출증대, 해외투자회사에 대한 설비 및 원부자재 수출 등 正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며 무역수지 효과를 동태적으로 보면 해외투자 초기에 있어서는 正의 효과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負의 효과가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비교우위 상실업종의 해외투자는 수출감소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한편 국내 사양산업의 해외이전을 통하여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짐은 물론 일부 대선진국 투자의 경우, R & D 공동참여 및 현지 기술자 채용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대개도국 투자는 우리 기술이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국내산업 공동화가 발생하는 부메랑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상의 효과 이외에도 해외직접투자는 EC, NAFTA 등 지역경제 블록화에 대응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표 II-1>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국가경제에 대한 종합적 효과는 각국이 처한 대내외 경제환경과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선발개도국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기술의 습득, 산업구조조정, 각국의 수입규제장벽의 극복 등 正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표 II-1> 해외투자의 국민경제적 예상효과

正의 효과	負의 효과
· 수입규제극복 및 비용절감을 통한 해외시장확보 효과 · 산업구조조정 촉진 효과 · 선진기술 습득 효과 · 자회사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	· 자본유출에 따른 국내투자 대체 효과 · 수출대체 및 역수입으로 인한 본국으로부터의 수출감소 효과 · 기술이전을 통한 부메랑 효과

제2절 대중국 직접투자 동기 및 이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동기를 구별한다면 첫째,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투자(production efficiency seeker) 둘째, 잠재적 시장확보를 위한 투자(market seeker) 셋째, 자원확보를 위한 투자(raw material seeker)로써 유형화시킬 수 있다. 대중국 직접투자는 저렴한 노동력을 통하여 생산효율 지향을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섬유, 의류, 신발, 피혁, 조립금속 등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대중국투자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의 제품수명 주기로 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내에서의 성숙기 및 쇠퇴기에 있는 제품이 전체 제품의 90%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기업이 제품의 수명주기를 최대한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동기는 무역확대형 동기로서 우리나라 경쟁력 상실업종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제3국 시장진출 동기가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비절감을 통한 생산효율 확보형 투자(production efficiency seeker)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대중국 직접투자를 통해 누리고자 하는 우위가 절충이론의 세 가지 우위(OLI) 중에서 입지우위(location)를 획득하기 위한 내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요소 및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므로 투자기업 내부에서 직접통제하려는 기업내부화의 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동기는 대체로 ① 해외시장의 확보 및 개척을 위하여 ② 수출 장애요인 회피방안의 일환으로 ③ 비교우위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④ 선진기술 개발 및 습득을 위하여 ⑤ 해외자원확보를 위하여 ⑥

국내 사양산업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등 복잡 다양하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대중국 직접투자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 독점적 우위론, 내부화이론, 절충이론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독점적 우위론은 해외투자기업이 자회사를 통하여 현지기업보다 더 유리하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즉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은 특정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사업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현지기업에 비해 언어, 문화, 법체계 및 상관습 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의 증가, 현지정부가 실시하는 여러가지 차별대우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만한 어떤 우위요소 즉 기술적 우위, 브랜드 네임, 마케팅 및 관리기법상의 우위요소가 무엇인가를 규명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은 기업의 본질을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거래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이 외부시장을 내부시장으로 대체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코즈(R.H. Coase)의 이론을 토대로 버클리(Peter J.Buckley)와 카슨(Mark Casson)은 국경을 넘는 시장의 내부화가 실현될 때 해외직접투자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절충이론(eclectic theory)은 던닝(John H.Dunning)에 의해 제시되고 후드(Neil Hood)와 영(Stephen Young)이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기존의 제이론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설명이라는 사실에 역점을 두어 해외투자이론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던닝은 버클리와 카슨의 내부화이론을 확장시키면서 해외직접투자를 ① 기업특수적 요소(ownership-specific factor), ② 입지적 특수요소(location-specific factor), ③ 기업이 내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와 능력의 세가지 함수로 보았다.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으로서 구조적 시장방어론(전용욱·윤동진, 1991)의 입장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전산업의 해외투자를 분석한 결과, 가전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독점적 우위의 부재, 방어적이고 생존적인 차원에서 진출, 미성숙한 유형의 투자라는 특징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에서 시사하는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의 최대한활용을 위한 최적 시장진입 방법선택이라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기 보다는 기업전체의 입장에서 본 지속적 성장전략 하에서 손익개념을 떠나 행해지는 시장방어적 의사결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방호열(1992)은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절충이론이 예상하는 특징과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정성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업내부 의사결정자의 시각에서 보는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인 섬유 및 신발산업의 중저급 생산품에 있어서는 국내임금의 상승과 무역규제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누릴 수 없는 극한적 상황에서 고려되는 것이 해외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해외직접투자는 효율성의 추구에 그 근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우위의 유지 또는 상실방지라는 효과성 목표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절충이론은 왜 직접투자가 발생하는가 등의 기업의 해외시장진입에 있어서 초기단계의 현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동태적이고 규범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³⁾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진출동기, 투자기업 특유의 경쟁우위 및 현지특유의 우위요소를 살펴 볼 때도 절충이론을 대중국직접투자의 이론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중국시장의 값싼 노동력을 입지우위로써 파악한다면 세가지 절충적 요인중

주: 3) 대한상공회의소, 해외진출기업의 지역별 경쟁전략, 1993.12, pp.229~234.

오직 한 요소만이 충족된 상황이며 그 요소 또한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절충이론의 중국시장진출에 대한 설명력은 극히 제한적이다.⁴⁾

한국기업의 대중국직접투자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는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의 수정된 이론(Lecraw, Wells), 둘째는 산업조직이론의 변형된 이론(Giddy, Young, Lall), 셋째는 요소부존의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 이론(Kojima, Ozawa) 등을 들 수 있다.

Lecraw(1981)는 아세안 5개국에 투자하고 있는 23개 개발도상국 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으로서 소규모, 노동집약적 기술이용, 현지 원자재 활용, 내수지향적 및 현지기업의 큰 참여 등을 발견하여 제품의 표준화에 따라 생산공장의 입지가 선진국에서 개발 이전되어 개발도상국에서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된다고 주장하였다. 선발개도국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우위요소는 개도국의 제품생산기술이 선진국보다 노동집약적이고 현지투입재를 많이 사용하여서 후발개도국에게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발개도국 기업들은 후발개도국의 보호된 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자본과 생산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

Giddy와 Young(1982)은 개도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기업특유의 우위 부재, 기업규모의 소규모 및 투자기업의 경쟁적 구조 등으로 파악하고 기업특유의 우위가 없어도 개도국의 기업은 유리한 입지 특유의 우위가 나타나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개도국의 기업은 해외직접투자시 입지 특유의 요인과 함께 피투자국 현지에서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 4) 안동규, 중국과 한국간의 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집, 1992, pp.61~75.

Kojima(1978, 1982)는 미시적 기업차원의 설명보다는 거시적인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였다.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자국의 비교우위가 상실되었거나 상실과정에 있는 업종을 이 업종에 비교우위가 있거나 혹은 획득과정에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해외직접투자가 행해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양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고도화가 발생하는 무역 확대형 또는 무역보완형 해외직접투자를 강조하였다. Kojima의 이론은 기업의 독점적 우위가 없어도 비교우위변화, 임금상승, 정부차원의 지원 등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투자유형을 미국형과 일본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본형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첫째, 필수불가결한 자원의 확보 둘째, 대개도국의 비교우위를 갖는 기계설비·반제품 등 생산재의 수출촉진 셋째, 일본의 노동력부족·고임금 등으로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섬유 및 잡화산업 등의 개도국 이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즉 투자국에서는 비교열위 되어지는 산업을 현지국에 이전함으로써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의 발생을 강조하고 있다.

Ozawa(1977) 역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이유를 자국의 생산요소의 희소성, 증가하는 환경적 제약 및 주요 산업자원 공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같은 거시적 요인을 들고 있다. Ozawa는 Kojima 이론을 확장하여 미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차원의 미시적 요인이 주요한 요소이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독과점의 우위가 없는 즉 산업의 과점적 성격이 약할수록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내부구조 조종 및 비교우위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이론이 앞서 언급했던 절충이론, 내부화이론, 독점적 우위이론 보다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Kojima와 Ozawa의 이론은 비교우위를 상실해가고 있는 한국기업이 중국의 입

지우위요인의 장점을 이용하여 비교우위를 계속유지하려는 즉 기업의 독점적 우위없이도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는 대중국직접투자를 현상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직접투자 현상을 기존의 한가지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대중국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중국 특유의 우위(값싼 노동력, 원료 및 잠재시장)가 분명히 존재하며, 생산요소 및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므로 투자기업내부에서 직접 통제하려는 기업내부화의 우위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독점적 우위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기업의 대중국직접투자를 설명하려는 앞으로의 이론적 노력은 우선 현상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현상이해에 다른 인과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틀에서 또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국 직접투자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규모나 경험이 아직 풍부하지 않으므로 투자현상을 이론화시키는 것 보다는 현상에 대한 발생과정, 동기,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의사결정자의 행위 등을 고려하여야 된다. 바람직한 대중국 직접투자 이론은 장기적인 시장진출의 교두보 또는 그러한 발판으로서의 초기진입과 같은 동태적이고 전략적인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중국의 지역경제 현황과 우리나라의 투자실태

제1절 중국의 지역경제 발전정책

1. 지역정책의 추이

중국의 경우 근대공업의 발전은 대체로 청조후기의 양무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청조 정부의 양무파는 동남연해지역에 다수의 군수공업과 민수용 공업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동남연해지역과 長江 연안의 일부 도시들에는 중국의 근대공업 중심지가 형성되었다. 그후 서방열강들이 중국에 대한 세력을 강화하면서 많은 외국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이렇게 유입된 자본이 대부분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長江三角洲와 珠江三角洲, 環渤海地域의 天津, 靑島, 遼寧 중남부지역으로 집중됨으로 인해 중국의 공업발전은 구조적인 면에서 뚜렷한 식민지 및 반식민지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까지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은 매우 불균형한 상태에서 지역간의 발전수준에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⁵⁾ 공업분포를 보면 전국면적의 12%에 불과한 동부연해 지대에 전체 공업의 70% 이상이 편재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北京, 上海, 天津, 靑島, 無錫, 南京, 廣州의 7개 도시가 경제활동의 거점이 되었는데, 이들 7개 도시의 공업총생산액은 국내 공업총생산액의 94%를 점하였다. 이밖의 지역에는 내륙의 武漢과 重慶에 소규모의 공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이 2개 도시를 제외하면 중국의 광대한 내륙지역은 그야말로 근대공업의 불모지나

주: 5) 황천화, 중국구역경제발전의 대외개방, 경제지리, 1993, 9월호.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1949년 전국과 함께 중국정부는 낙후지역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내륙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간의 격차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3개년 경제회복기(1950~1952년)부터 연해의 구공업기지들이 재건됨과 동시에 일부 공장시설들이 내륙으로 이전되었다. 1953년에 착수한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는 기존공장의 이전에서 한걸음 나아가 전국의 공업배치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공업기지를 내륙에 건설한다는 방침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이 기간중 건설한 694개 중요 건설프로젝트의 68%에 해당하는 472개 프로젝트를 내륙에 배치하였다.⁶⁾

제2차 5개년계획기(1958~1962년)에도 내륙공업기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이 정책은 대약진정책의 발동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조정기(1963~1965년)에 뒤이어 불어닥친 문화대혁명의 와중에서 중국경제는 극도로 피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혼란과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방상의 관점에서 이른바 '3선건설'⁷⁾은 계속 추진됨으로써 내륙중시정책은 변동없이 견지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대약진에서 문혁에 이르는 시기의 지역정책이란 국방우선의 관점에서 공업기지를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경제입지상의 합리성은 빈번하게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방향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5차 5개년계획 이후부

주: 6) 중국 제1차 5개년계획의 중요 프로젝트는 대부분 구소련의 원조에 의해 추진됨.

7) 중국은 국방전략상의 관점에서 전국을 제1선, 제2선, 제3선의 3개로 구분하고 전쟁에 대비하여 제3선의 건설을 중시함. 제3선 지대로서는 四川, 雲南, 貴州, 陝西, 甘肅, 青海, 寧夏의 전지역과 山西, 河南, 湖南의 서부지역이 지정되었음. 3선건설은 1964년 10월 모택동이 제기하고 등소평이 실무를 맡아 수행하였음.

터이다. 1979년 이후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에 착수한 중국정부는 경제 자원의 배치와 지역발전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정을 행하게 되었다. 즉 종전까지 견지해온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으로부터 경제효율을 중요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제6차 5개년계획은 처음으로 ‘지구경제발전계획편’을 입안하고 연해지구, 내륙지구, 소수민족지구 및 미발달지구로 구분된 지구별 발전방침을 마련하였는데, 이 방침의 기본방향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과거 3선건설에 편중되어 연해의 발전이 경시되어온 경향을 수정하여 연해의 경제기술적인 우위성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내륙과 소수민족지구의 경제자원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역정책 철학의 전환은 제7차 5개년계획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 계획에는 전술한 동부, 중부, 서부라고 하는 지역관념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동부는 발전의 가속화, 중부는 중점지 발전, 서부는 개방에의 준비라고 하는 ‘단계발전전략’이 제시되었다.

제7차 5개년계획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건국 이후 중국의 지역정책은 초기의 동북지역 재건에서 내륙중시, 전국분산적 발전, 연해중시로 이어지는 변화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제8차 5개년계획기 내지 1990년대의 지역정책은 연해지구에 치중된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개발의 중점을 蘭州-成都-昆明線 以東地球의 경제력을 강화하는데 두어 종전의 연해편중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하였다.

2. 지역경제발전의 특징

가. 지역경제력의 확산

중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구공업기지를 중심으로 동부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력이 서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광대한 내륙지역에도 신흥공업기지와 공업중심지가 건설된 점이다. 수차례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동부연해지역의 공업시설들이 확충됨과 동시에 서부내륙지역에서도 새로운 개발계획이 시행된 결과 서부내륙지역의 모든 성시지역에도 야금, 화공, 기계, 경공업, 방직 등 주요 공업부문을 갖춘 비교적 완벽한 형태의 지역경제체계가 형성되었다. 1950년대에 중국의 공업은 주로 동부연해의 수개 성·구지역에 집중되어 서남과 서북 8개성의 1952년 공업총생산액은 상해 1개시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 현재의 상황을 보면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시행된 결과 내륙 각 상·구가 전국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었고 철강재, 자동차 등의 공업생산도 몇개 강·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다. 다만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력은 여전히 동부연해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겠다. 경제력 분포의 '西進'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역경제 구조와 자원분포는 어느정도 공간적인 불균형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내륙지역개발의 촉진

중국은 지난 40년간 특히 개혁·개방 이전의 30여년간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본건설투자⁸⁾와 신규 건설항목을 배분하는데 있어 내륙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편중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내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해지역의 경제가 비교적 발전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설비의 기술적인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중국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연해지역의 기술적인 발전이 경제가 낙

주: 8) 중국은 고정자산투자를 기본건설투자와 기술개조로 크게 양분하여 시행하는 바, 기본건설투자는 주로 신규 프로젝트가 대상이 되고 기술개조투자는 기존기업의 개량과 시설확충에 사용됨

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표 III-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53년에서 1989년에 이르는 기간중에는 각 성·구지역의 연평균 국민소득 증가율과 공업생산 증가율은 전국 평균증가율과 비교하여 그 격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 서남과 서북변방에 위치한 성구지역의 국민소득 증가율은 대부분 전국 평균증가율을 약간 상회하였다. 그러나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수준면에서 볼 때, 동, 중, 서 3대 지대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오면서 그 격차는 오히려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1> 중국의 지역별 국민소득·공업총생산액 연평균 증가율
(1953~1989년)

(단위 : %)

	국민소득	공업총생산		국민소득	공업총생산
全 國	6.8	11.7	河 南	6.6	12.4
北 京	4.6	11.6	湖 北	6.4	12.6
天 津	7.4	9.1	湖 南	5.9	11.9
河 北	6.2	11.3	廣 東	7.2	12.7
山 西	6.1	11.5	廣 西	5.6	12.0
內古蒙	6.4	13.4	海 南		11.6
遼 寧	7.3	9.9	四 川	6.0	11.8
吉 林	6.4	10.3	貴 州	5.8	11.1
黑龍江	6.4	9.5	雲 南	6.9	11.2
上 海	8.3	9.2	西 藏		
江 蘇	7.1	13.2	陝 西	7.1	12.8
浙 江	7.7	13.6	陝 西	7.3	13.6
安 徽	5.3	11.3	青 海	7.0	15.4
福 建	7.2	13.0	寧 夏	7.0	11.7
江 西	5.7	11.5	新 疆		
山 東	7.1	12.6			

주 : 西藏은 1979~1989년중 연평균 2.8%의 공업생산 증가율을 보임

자료 : 중국통계연감

<표 III-2> 동·중·서부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공업총생산액 비교

(단위 : 원)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공업총생산액			
	1953	1979	1985	1990	1953	1979	1985	1990
전 국	121	343	663	1,262	77	481	918	2,092
동 부	136	451	893	1,565	126	679	1,249	3,069
중 부	107	271	579	1,070	50	432	710	1,479
서 부	69	254	375	948	31	223	665	1,108

자료 : 황천화, 앞의 자료에서 인용

다. 경제안배 및 자원배치방식의 변화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는 투자의 배분이 국가계획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후 이러한 중앙계획에 의한 집중비중은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0년의 경우 국가예산에 의한 투자가 총 고정자산투자에서 점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여 1981년과 비교할 때 무려 20% 포인트가 감소되었다.

또한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기본건설투자가 전체 기본건설투자에서 점하는 비중도 1981년의 50.3%에서 1990년에는 21.3%로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일부 승인 및 관리권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농촌 향진기업의 발전으로서, 1990년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은 4,835억 원으로 동년 전국 공업총생산액의 20% 이상을 점하였고 총고용인수는 3,189만 명에 달하였다. 경제발전이 비교적 빠른 지역으로 알려진 廣東, 江蘇, 浙江, 山東 지역이 모두 향진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향진기업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

다.

전국이후 건설과정을 통해 중국은 지역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1980년대의 개혁·개방정책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지방경제의 발전은 1980년대에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견인차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 경제에 왕성한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첫째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 점이다. <표 III-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 중, 서 3대 지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중부와 동, 서부와 동부간의 절대액 차이는 1979년의 180원과 197원에서 1990년에는 각각 495원과 617원으로 늘어났고 서부와 중부의 절대액 차이도 동기간중 17원에서 122원으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관리 능력이 강화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통제기능의 강화는 각 지방별로 이미 존재해오던 중복건설의 폐해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또 지방간의 상품, 자금, 기술, 인원의 이동을 가로막는 지역봉쇄와 시장분할이라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3. 지역간 경제력 비교

가. 경제력 격차의 문제

중국의 경우 동·중·서부간의 경제격차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개혁·개방이후 연해지역에 대한 우선발전전략이 시행된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격차폭은 현저히 확대되었다. 중국정부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격차는 경쟁을 자극함으로써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나 만일 격

차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경제·정치·사회적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의 중서부는 통상 ‘노, 소, 변, 궁’ 지구로 불리운다.⁹⁾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지역의 경제적 낙후는 비단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정부가 연해에서 중서부지역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중국의 제7차 5개년계획(1986~1990년)에 의해 구획된 중부와 서부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은 18개 성·구로서 총면적은 중국 전체넓이의 80%, 총인구는 7억명으로 총인구의 64%를 점한다.¹⁰⁾

나. 격차축소를 위한 시책

연해와 내륙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격차로 인해 중·서부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이것이 사회·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중국정부는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첫째는 대외개방을 沿海에서 沿江(長江), 沿邊(邊方)과 內陸지구로 확대하여 대외개방에 있어 전방향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長江 연안을 따라 여러 도시를 개방한데 이어 중국의 변방지역에 있는 13개 변경도시, 현진을 개방하여 개방지역을 중국전역으로 넓혔다. 이로써 상해포동개발을 선두로 하는 장강유역개방대가 형성되어 중서부지역 개발이 촉진됨과 동시에 변경지역과 주변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둘째,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동부 연해지역의 비교우위를 중서부지역으

주: 9) ‘노’는 중국의 혁명근거지, ‘소’는 소수민족, ‘변’은 변방, ‘궁’은 빈곤을 뜻함

10) 동·중·서부는 원래 지리개념이지만 경제발전계획과 연계되면서 경제적 의미를 갖게 됨

로 확산시켜, 내륙의 자원 및 기술과 결합시킴으로써 연해와 내륙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토록 하고 있다. 즉 경제지역을 장강연안지구, 장강삼각주지구, 환해지구, 서남지구, 남북지구, 중원지구, 동북지구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 7대 지역경제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정책이다. 이는 동·중·서부경제발전에 모두 유리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결합에 의해 중국의 전지역이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동·중·서부의 격차 축소와 함께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연변지구는 소수민족들이 집중 거주하는 빈곤지구이기 때문에 지역간의 연계와 협력은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게 되어 민족간의 단결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변경지역의 안정은 주변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있어 지역경제협력의 발전은 경제적 및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장강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장강연안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전체 장강지역과 배후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상해 포동을 1990년대의 중점개발지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장강전략’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계획의 골자는 포동을 선두로 한 장강경제대를 건설한다는 방침아래 장강삼각주, 그리고 상해에서 사주성의 중경에 이르는 전체 연강지역의 개발·개방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계획의 출발점은 상해 포동개발과 삼래담 건설공사가 된다. 이 경제대는 장강삼각주와 장강연안의 28개 도시 및 8개 지구를 포함하며 인구는 중국 총인구의 14.7%, 공업생산액은 전국공업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다. 장강전략계획에 소요되는 투자액은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째, 중서부지역 향진기업의 육성이다. 중서부지역의 농촌경제가 낙후되고

농촌소득의 증가가 완만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향진기업의 발전격차에 있으며, 따라서 중서부와 동부간의 경제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서부 및 소수민족지구의 향진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 국무원이 1993년 2월 각급 지방정부에 향진기업의 발전을 중서부지역 경제발전의 최우선 전략목표로 할 것을 지시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까지 기배정된 향진기업 대출융자금과 정상적으로 증액되는 자금외에 중국인민은행이 매년 국가대출계획에서 별도로 50억원의 대출자금을 확보하여 중서부지역 향진기업의 발전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각 전문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중서부 향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른바 '향진기업 동서협력사업계획'에 의해 동부와 중서부지구 향진기업간 횡적 경제연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기반시설의 강화이다. 특히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에 가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교통운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4. 1990년대의 지역개발정책¹¹⁾

가.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시장 메카니즘 도입

중국정부는 1991년 제8차 5개년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2000년까지 GNP규모를 1980년 대비 4배로 증가시키는 「경제발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근대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1990년대의 과도한 지방분권을 시정하여 경제권한의 재집중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

주: 11) 丸山伸郎編, 長江流域の經濟發展, アツア經濟研究所, 1993.5, pp.12~18.

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분권화가 1980년대처럼 통일시장의 형성을 방해한 제후경제화를 강화시켜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경제근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생산요소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자, 자금, 기술, 인재 등의 자유이동과 관련시장이 정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당면과제가 된 지역경제 봉쇄의 타파와 개방화된 지역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우회적·점진적인 개혁에서 보다 대담한 개혁과 대외개방의 확대가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가격자유화의 추진, 임금 및 노동시장의 정비, 외자도입규제 완화 등의 개발 촉진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특정지역을 우대한 종래의 지역경사정책에도 수정이 가해졌다. 경사정책은 대외개방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지역간의 기회불균 등을 야기시킴으로써 제후 경제화를 조장하고 시장 메카니즘이 연해에서 내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중국정부는 개방지역을 '삼연'지역, 즉 종래의 연해지역에서 내륙과 변경지역으로 확대, 연해, 연강, 연변의 주요 도시를 개방도시로 지정하여 주변지역과의 국경무역을 확대토록 하고 내륙 및 변경지역에 대해서도 해외시장에의 접근기회를 부여하였다.

나. 상해포동신구 개발

상해포동신구 개발은 시장 메카니즘에 바탕을 둔 지역개발정책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포동신구는 그 개발구상에서 2개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하나는 외향형 경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다. 즉 국제시장의 영향하에 정보, 금융, 무역 등 종합적인 기능을 지닌 근대적인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연해의 산업과 기술을

광대한 내륙의 자연과 시장을 연계시켜 자립적인 국민경제권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다. 경제개발구의 설치

지역개발에 있어 외자¹²⁾에 대한 기대가 증대하게 되면서 중국 각지역에는 이러한 외자를 수용하기 위한 경제개발구, 하이테크 개발구, 수출가공구 등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개발구의 설치는 1980년대에는 연해의 특정지역에 한정되었으나 1990년대에 와서는 내륙으로 그 대상지역이 확대되었다.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일단 인가된 개발구는 정부로부터 건설을 위한 면세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은 개발구 설치를 허가하도록 각종 방법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중국에서 개발구 붐의 효시가 된 것은 강소성 곤산시의 경제개발구이다. 동개발구는 정부의 인가없이 자력으로 건설되어 독자적인 우위정책하에 외자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러한 경제구 설치방식에 대해 중앙정부는 1991년초 종전까지의 불법이라는 입장을 바꾸어 동개발구를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경제개발구 설치요구가 잇따르자 중앙정부는 곤산모델의 예에 따라 개발구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소요자금은 자체조달토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각 지방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킨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 대외의존형 개발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개발구 건설을 위한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 외자유치를 위한 경쟁적인 우대배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주: 12) 이러한 외자에는 국내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도 포함됨.

라. 외자에 대한 업종규제 완화

199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업, 유통업(소매, 운수, 보험, 상사) 등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중국정부는 서비스업의 개방을 통해 외자기업의 노하우를 흡수하려 하고 있다. 외자의 서비스업 진출은 상해, 푸동신구, 북경, 천진, 대연 등 연해의 수개 도시로 제한되어 아직은 실험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정부는 서비스업에 이어 도시재개발사업, 철도, 도로, 항만, 공항정비발전소 건설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도 외자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 부문의 외자진출은 외자에 건설과 경영을 위임하고 사용료 수입으로 상환을 끝낸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build operation transfer)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외자측이 인프라 정비를 대행하는 이러한 BOT 방식의 프로젝트가 각 지역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중에는 실현성이 없는 것도 없지 않지만, 이미 고속도로, 철도, 항만정비, 화력발전소 건설 등 분야에서 홍콩과 동남아 화교자본에 의한 프로젝트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상에서 중국의 지역경제에서 추구하고 있는 재개발 모델을 살펴보았다. 이 개발 모델의 주요 골자는 내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내륙 제성의 시장과 자원을 바탕으로 역외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② 자연자원에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산업의 다각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제2절 중국의 외자도입현황과 외자유치정책

1. 중국의 외자도입 현황과 특징

중국은 1993년중 대외차관, 외국인 직접투자를 합하여 1992년 실적의 1.8배

에 달하는 1,232억 7,800만 달러(계약기준)의 외자를 도입하였다. 이 중 대외 차관이 158건, 113억 달러, 직접투자는 83,437건, 1,114억 달러로 외자도입의 90.4%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의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전년비 2배 정도 증가한 390억 달러에 달하였다.

대외차관은 정부차관이 줄어든 대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차관이 크게 증가했으며, 기타 항목에서는 수출신용이 12.4억 달러, 외국은행 상업차관이 19.8억 달러, 해외에서의 채권·주식발행이 13.9억 달러이다. 동년 실제이용 차관은 112억 달러로 전년비 32.8% 증가하였다.

<표 III-3> 중국의 외자이용 현황

(단위:억달러)

항 목	1992		1993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대외차관	94	107.03	158	113.05
정부차관	75	43.90	132	28.89
국제금융기구 차관	19	21.72	26	38.07
기 타	-	41.42	-	46.07
외국인 직접투자	48,764	581.24	83,437	1,144.35
합자기업	34,354	291.28	54,003	551.74
합작기업	5,711	132.55	10,445	254.99
독자기업	8,692	156.96	18,975	304.56
공동개발	7	0.43	14	3.04
기 타	-	6.12	-	5.31
국제리스	-	0.77	-	0.65
보상무역	-	4.15	-	2.70
가공무역	-	1.20	-	1.95
합 계	48,858	694.39	83,595	1,232.78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의 외자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전체의 90% 이상을 직접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누계로 건수 199,678개, 합의금액 2,660억 달러, 실제투자금액 766억 달러에 달하였다. 1994년 상반기

만을 놓고 보면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허가기준으로 건수 25,450개, 합의금액 440억 달러로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동기비 42%, 25%나 크게 감소하였으나, 실제 투자실행액은 147억 달러로 오히려 54.9%나 증가하였다. 이는 전당 평균투자금액이 173억 달러로 작년동기의 134만 달러보다 28.7% 증가하는 등 투자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4>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건, 억달러)

	1978~1991 누 계	1992	1993	1994.1~6월	누 계
건 수	42,027	48,437	83,437	25,450	199,678
금 액	523.4	581.2	1,144.3	440	2,659
실제이용액	233.5	110.1	257.1	147	766

자료 : 한국은행, 중국의 해외투자동향, 1995.2.

UNCTAD의 '94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1993년중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미국 320억 달러, 중국 260억 달러)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채무보고서'도 중국이 개도국 중 최대의 직접투자 유입국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중 개도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분의 2/3를 중국이 흡수하였다.

1993년말 현재 중국에는 중외합자기업 10만 7,800개, 합작기업 2만 5,500개 및 3만 4,200개의 외상독자기업이 승인되어 8만개의 외자기업이 영업중이며, 2천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외자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금액면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외자기업의 교역은 1993년 670억 달러로 중국 총수출입액의 34.4%를 차지하고 있고 외자기업의 수출은 254억 달러로 중

국 총수출의 27.5%를 점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홍콩으로부터의 투자계약액 중에 실제로 다수의 외국계 기업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만기업과 동남아 화교기업은 대부분 홍콩에 계열기업을 갖고 있고 그것을 거점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 및 구미기업 중에서도 홍콩의 자회사를 통하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예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국내기업의 홍콩현지법인에 의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기업의 대중국투자 가운데 실제로는 홍콩 이외의 외국기업들에 의한 투자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진출 러시는 화교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중국시장을 선점하려는 세계유수의 다국적기업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2. 주요국의 대중국진출 전략

다음에 투자국의 입장에서 국가별 대중국진출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국가별 대중투자 패턴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투자동기에 있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확보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 홍콩과 대만, 한국 등은 현지의 낮은 생산코스트를 이용한 수출지향적 투자가 대부분이다.

둘째, 투자업종 면에서 홍콩, 대만 등이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수출지향적 업종이 많은 반면, 구미 기업들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일본기업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고르게 진출하고 있다.

셋째, 투자유형별로는 선진국들이 투자규모가 크고 내수시장 진출에 목표를 둔 합자방식이 많은 반면, 홍콩, 대만, 한국은 단독투자 비중이 높다.

<표 III-5> 국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억달러)

	1993			1979~1993 누계		
	건 수	계약액	실행액	건 수	계약액	실행액
홍콩 · 마카오	49,134	739.39	172.75	112,413	1,481.19	385.18
대 만	10,948	99.65	31.39	20,982	184.37	50.56
미 국	6,750	68.13	20.63	12,019	146.60	52.37
일 본	3,488	29.60	13.24	7,182	89.34	52.03
한 국	1,748	15.57	3.74	2,691	21.73	5.50
캐나다	959	11.84	1.37	1,540	18.15	2.60
호 주	969	6.38	1.10	1,310	12.45	3.38
영 국	348	19.88	2.21	616	30.12	5.79
독 일	320	2.49	0.56	569	14.58	5.27
프랑스	305	2.36	1.41	547	9.20	6.02
합 계	83,437	1,144.35	275.14	174,228	2,218.97	618.69

자료 : 한국은행, 중국의 해외투자동향, 1994.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화교자본은 광둥, 복건 등 지연과 혈연이 있는 화남지역에 대거 진출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여 한국은 발해만과 동북3성에, 일본은 대도시와 중북부지역에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개방지역이 연강 및 내륙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 기업들은 이들 지역에 경쟁적으로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 동남아 화교자본

중국의 전체 외국인투자 중 80% 이상이 홍콩 ·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 화인 · 화교자본에 의한 것이다. 이들 화교는 대부분 광둥, 복건, 절강 등 남부 연해지역 출신으로 출신지역별로 지연 및 인맥을 활용하여 중국진출

을 주도하고 있다.¹³⁾

이들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가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각 나라마다 화연상회 등 전체적인 화교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 화교기업가들이 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화교자본의 대중투자는 이러한 조직을 기본단위로 한 네트워크와 비밀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사림그룹, 태국의 CP(차론 포카판)그룹, 말레이시아의 쿠옥크 브라자스사 등 유력 화교자본은 우선 홍콩에 진출한 후 그것을 거점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나. 대만

대만기업의 대중투자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대륙 친지방문 허용, 외환통제 자유화(연간 500만 달러 반출 허용) 등 대중 경제교류를 자유화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기업의 대중투자 건수와 금액에 관해서는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신뢰할 만한 통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대만기업들이 투자실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측 통계도 제3국 명의의 합법, 비합법적인 대만기업 투자를 대만의 투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실하지는 않으나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1993년말 현재 대만의 대중투자는 대만정부가 공식 발표한 9천건, 3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약 2만건, 190억 달러(계약기준)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언어, 문화적 공통점이 대만기업들의 현지진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을 제정, 대만기업의 대중투자를 “특수한 국내

주: 13) 복건성 출신의 복건방, 주강일대 출신의 광동방, 광동성 조주 출신의 조주방, 광동성 북부와 복건성 서부 출신의 객가방, 해남성 출신의 해남방 등 5대 방조직이 있음.

투자”로 간주하고 다른 외국인투자와 구별하고 있다는 점도 대만의 대중투자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기업들은 소규모투자에서 시작, 투자규모 및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만기업의 대중투자전략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현지시장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 미국

미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현재까지 1만 2천건, 60억 달러 이상으로 대중투자국 순위로는 3위이지만 앞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데다가 그 중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800건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미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대중진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국무원, 중국석유화 총공사, 중국 최대의 군수산업체를 갖고 있는 중국북방공업(집단)공사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의 25개 성시로부터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미투자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800개 프로젝트 중 60개는 수력발전소 건설관련 항목이고 약 100건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초시설의 건설, 나머지는 기계, 전기, 화학, 야금, 농림업 관련 투자이다. 이처럼 중국이 대미 투자유치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제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인권문제 및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연장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증가하면 미국의 대중 MFN 중단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중국이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1994년의 MFN 협상중 미국상공회의소와 AT&T(통신), 보잉(항공기), 메릴린치(금융) 등 미국의 산업계가 시종일관 “통상과 인권문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대중 MFN연장을 지원했던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그동안의 관망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기업의 대중투자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가공수출을 위한 투자 보다는 내수시장을 직접 겨냥한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AT&T사의 대중국 진출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광주에 2,900만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암웨이사,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중국 10개 지역에 신규공장을 건설할 예정인 코카콜라사, 심양에 1억 달러 규모의 픽업트럭 합작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GM, 상해에 동 및 광섬유케이블 제조공장을 합작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3M사 등도 내수시장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 일본

일본기업 등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진출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1992년부터 대중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투자는 1988년까지는 광둥성과 복건성 등 동남연해와 경제특구(총 투자건수의 70% 이상), 요녕성 대련에 집중되었다. 1993년말 현재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20%가 대련일대에 투자하고 있고, 1993년 11월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일본기업 전용단지를 건설하였다. 그 당시에는 직접진출보다는 홍콩에 지사를 설립, 그곳에서 진출하거나 홍콩의 화교자본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엔고를 배경으로 중국투자붐이 일면서 투자지역도 상해와 그 주변지역, 하북, 호북, 사천, 등 내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진출동기도 종래에는 낮은 생산코스트를 이용한 생산기지의 확보였으나, 이제는 중국을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중투자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 소매업과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회사, 금융·보험, 호텔, 식당 등 서비스부문의 투자로 투자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다.

일본의 대중투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완제품 조립업체와 부품공급업체가 동반진출하거나 완제품조립업체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사업종의 기업이 한 지역에 과다 진출하여 인력스카우트 등 과당경쟁을 노출하고 있는 한국기업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이 북경의 건국문화대가에 장부궁 판공루라는 상업용 건물을 건축, 일본의 기업 및 단체의 입주를 통한 패키지 형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국익을 우선하는 일본기업의 기본 자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가. 배경

중국은 그동안 고용확대와 수출증대, 기술이전 촉진 등을 목적으로 양적 확대 위주의 외자도입정책을 펴왔으며, 각국 지방정부는 고용효과 및 수출증대 효과가 큰 임가공 생산기지이전형 중소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노동집약적 가공공업 위주가 되고 지역적으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전국적인 분업 및 공업배치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자기업은 고용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기술이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 또한 지방정부간 경쟁적 투자유치에 따른 우대조치의 남발과 중복·과잉투자,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저조한 투자실행률과 조업률, 토지투기 조장, 탈세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투자실행률은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개발 부문이 50% 이하이지만 제조업

주: 14) 김시중, 중국경제의 특성과 외국인직접투자의 문제점, 지역경제, KIEP, 1994.8.

분야는 70% 이상에 달한다. 1992년 대중투자계약액 중 31%가 인프라 스트럭처, 부동산부문이고 56%가 제조업부문이다. 1993년에는 전자의 비율이 보다 높아져 투자실행률이 더욱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중인 외자기업 중 결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이후 매년 40%를 초과하고 있고 1992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42.5%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손은 일부 외자기업이 이익을 거둘 때까지는 면세 등 우대혜택을 받기 때문에 고의로 적자 결산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중국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양적 확대에서 선별적인 투자유치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외자유치정책의 중점을 과거의 지역별 정책에서 산업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외자도입을 산업정책 및 지역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업종별로 외자도입 방침을 정하고 투자장려항목에 대해서는 지역을 초월하여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나. 외자유치의 중점분야

1993년 11월 당 14기 3중전회의 결정은 외자유치의 중점을 기초설비, 기초산업, 첨단기술산업 및 노기업의 기술개조, 수출형 기업 등에 두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밝힌 중국의 중점적인 외자유치항목은 농업종합 개발항목 및 외향형 농업, 기초시설, 기초산업, 자본기술집약형 및 첨단기술항목, 대중형 국유기업의 기술개조, 수출가공업 등이다. 또한 금융, 상업, 물자, 외국무역, 운수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기술도입 및 개발에 성공하여 제품의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고 또 제품의 수출확대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또는 제품의 수출할당이 부여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일반가전, 알루미늄 샷시, 중고타이어 재생, 복사기, 일반테트론사의 단섬유제조설비, 면·모방직, 중고자동차의 재생, 일반라디오·카세트와 흑백브라운관, 소규모 시멘트생산, 1회용 주사기, 250만톤 이하의 석유정제플랜트 등이다.

<표 III-6> 중국의 외자유치 중점항목

구 분	우선 유치항목
농업개발 프로젝트	다수확 곡물품종 개발, 우량가축 및 가금사육, 고성능 화학비료 및 고농도 인산비료 개발, 복합살충제 및 사료첨가제 개발, 농산물 및 육류 저장기술 향상, 첨단 다기능 농업기계제품 및 고성장육립종 개발 등
기초시설 및 기초산업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석탄광산용 장비설계 및 생산, 철도, 고속도로, 교량, 항만설비의 건설 및 운영, 철도운송용 장비 및 기술개발, 50만톤 규모 이상의 제철소건설, 열연 및 냉연강판 생산, 5인치 수정규소 생산, 비철금속 합금, 신합금소재, 합성고무 용융, 정밀화학제품, 유기화학원료 및 제품, 석탄원료 화학제품, 유기염화제품 등
품질향상, 에너지절약형 장비 및 자재도입, 생산	대형 발전장비 및 주변기기, 양수기, 에너지저장 장비, 터빈, 대형디지털제어 정밀공작기계 및 부품, 다이소생산센터 건설, 주요 자동차부품 생산, 자동화기기 및 미터기, 섬유기계 및 제지플랜트 등
수출주도형 고급제품	전기기계장비, 기초전자 및 기계부품, 플랜트설비, 메카트로닉스 제품, 예비부품 등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광범위한 응용	저연소연료와 그에 따른 자원의 종합적인 개발 및 이용, 산업폐기물 이용에 관한 기술 등

또한 부동산투자와 고소비 서비스시설 투자는 억제하고 국가계획 및 민생 관련 또는 독점형성이 용이한 기초시설(통신, 철로, 항공, 부두 등 항목)과 국가 지주산업에 대해서는 외상독자경영을 불허하고 합작항목도 국가가 국가의 주식통제를 보증하거나 통제권을 보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서부 내지에는 농축산업개발, 자원개발 및 에너지, 원재료공업에 대한 투자에 상응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수입 대체적 기술 집약형 상품의 내수위주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내수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첨단기술산업 분야와 내륙지역에서 진출기업의 수출의무비율에 대한 행정지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고 외환형평의무에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술적 요소가 적은 노동집약형산업과 공해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다. 외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이러한 선별적인 투자유치와 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¹⁵⁾ 중국측 기업의 현물출자시 국유자산의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국유자산평가 관리제도, 외자측 기업의 현물출자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사정하기 위한 외국기업 투자재산 감정관리규칙, 외자기업에 대한 공상행정 관리국의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등기·관리 강화조치 등을 들 수 있다. 토지분양권의 정부독점, 공개입찰 방식으로의 토지공급방식 개선, 개발구 건설의 규제 등 토지사용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이 중 외자기업의 등기·관리 강화는 저가격으로 국유자산을 평가하고 그것을 외국기업과의 합작에 이용하거나 양도하는데 따른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주: 15) 백권호, 대중국투자 애로사항과 대응전략,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 세미나 자료, 1994. 9.

<표 III-7> 중국의 투자금지 및 제한업종

구 분	품 목	이 유
투자금지품목	손목시계	전국에 이미 1천만개의 재고 누적
	화 장 품	전국에 대중형 화장품공장이 2천개로 재고 누적
	모방직품	현재 전국 모방생산 1/3의 설비가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
	화섬카펫과 기섬카펫	생산능력이 실제수요를 몇배 초과
	스테인레스 제품	원자재 부족
	플라스틱 벽지	생산량이 판매를 초과
	식품기계	상당한 수량이 중복됨
	동아연제품 가공공업	개형발전, 원자재 부족
	타월과 침대커버	생산량이 시장수요를 초과
	마 대	연간 생산량이 이미 7억개에 달함
투자제한품목	알루미늄합금 창문, 인조대리석, 수마석, 플라스틱가공, 소형 자동차	신규 건설이나 확장 건설이 적합하지 않은 분야로 판단. 3~5년내 투자불허

외자기업 관련제도 및 법규도 차례로 정비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시간 제한(주 44시간, 격주휴무제, 1일 4시간 초과 금지), 노조설립 의무화(설립후 2년 이내), 노동보험제도 및 안전·위생기준의 제정 등 복지후생 강화 등을 규정한 노동법도 공표되었다. 신세법에 의해 신규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분세제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정부의 세수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라. 외자기업에 대한 신세제의 영향¹⁶⁾

중국은 1993년말 세수확대 및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소득세 통일, 개인소득세 개정, 유통세제의 개편(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현실에 부적합한 세종의 취소 및 중복설치된 세종의 통합, 새로운 세종의 신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세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의 세제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평한 세금부담과 세제의 간소화를 도모하며, 그동안 기업의 소유형태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세제를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혁에 따라 중국내 모든 기업에 대해 33%의 통일된 기업소득세와 17%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국가와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배체제가 대폭 조정되었다.

중국정부가 세제개혁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이전의 공장세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객관적 요구에 더 이상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4년 이전의 중국의 공장세제는 기본적으로 1984년의 ‘二個稅’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지난 10년간의 경제체제 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계획경제가 시장조절의 결합이라는 조건에 맞게 설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여 공평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둘째, 국가와 기업간 분배관계가 규범화되지 않았다. 주관부문과 지방정부가 기업에 대해 다양한 명목의 관리비와 각종 기금 등을 요구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세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수수입과 세수관리권한의 분장이 불합리하고 세수관리범위가 불확실한데다 세금징수 과정의 허점때문에 심각한 세금유

주: 16) 산업연구원, 우리나라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방안, 1994.12, pp.115~125.

실을 가져왔다.

세수제도 개혁의 기본원칙은 세법의 통일, 세금부담의 공평화, 세제의 간소화, 분권의 합리화, 분배관계의 정확화, 조절기능의 발휘, 재정수입의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유통세 등 세수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세제개혁이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그동안 국내 기업은 물론 외자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던 지방정부의 보이지 않는 다양한 명목의 관리비와 각종 기금 등이 축소 내지 폐지되어 외자기업의 간접비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되었다. 또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유통세 등 각 세수제도의 통일, 정확화, 간소화, 합리화 됨으로서 외자기업 운영에 투명성을 보장해준은 물론 내수기업과 외자기업간 어느정도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였다.

제3절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 및 문제점

1. 대중국 투자현황

가. 투자 규모

한중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투자 규모는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즉 1989년 14건 1,3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우리의 대중투자는 1992년에는 265건 2억 1,7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1993년에는 다시 곱절 이상으로 증가하여 616건 5억 9,700만 달러에 달하였다. 1994년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상반기에만도 506건 3억 5,000만 달러의 투자가 허가되었다(한국은행 허가기준).

그 결과 우리의 대중투자는 1994년 6월말 현재 누계 1,549건 13억 2,8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23.7억 달러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¹⁷⁾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중 대중국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6월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건수면에서 35%, 금액면에서 15.4%를, 그리고 실행기준으로 건수면에서 30.1%, 금액면에서 1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홍콩, 대만, 일본 및 구미기업에 비해 역사가 일천하여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에서 점하는 한국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실행기준 1% 미만) 한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밀성,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지속적 개발의 필요성, 한국의 개발경험,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및 국제화 추세 등으로 보아 대중국 투자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표 III-8>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현황

(단위:건, 100만 달러)

구 분	허 가 기 준						실행기준
	1990	1991	1992	1993	1994.1~6	누 계	
건 수	50	111	265	616	506	1,549	1,016
금 액	65	81	217	597	351	1,328	707

자료 : KIEP 지역정보센터

우리나라의 대중투자는 1994년 6월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건당 86만 달러로 중소기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중 수교 이후에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 500만불 이상의 대형투자가 1993년말 13건, 1993년말 25건, 1994년 6월말 36건(이상 누계 기준)으로 순조로운 증가

주: 17)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보면 1994년 상반기중 한국의 대중투자는 1993년말에 비해 2억 3,300만 달러가 늘어 미국의 2억 3,000만 달러를 앞질러 최대 투자국이다.(한국은행, 「해외투자 현지법인 현황」 참조)

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4년 1~6월 기간중 500만 달러 이상의 대형투자는 11건으로 1993년 연간 실적 12건을 거의 육박하는 활발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표 III-9>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중 대중국 투자비중
(1994. 6월말)

(단위:건, 100만 달러)

	허 가 기 준			실 행 기 준		
	전세계	중 국	비 중	전세계	중 국	비 중
건 수	4,428	1,549	35.0%	3,374	1,016	30.1%
금 액	8,620	1,328	15.4%	6,355	707	11.1%

자료 : 통상산업부, 한국은행

나. 투자 지역

투자지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환발해지역과 동북 3성에 집중되어 있다. <표 III-10>에서 보듯이 1994년 6월말 현재 총 1,549건의 대중투자 허가건수 가운데 북경경제구 및 환발해경제구에 1,326건(85.6%)이 집중되어 있으며, 허가금액 및 실제투자액 기준으로 볼 때도 총액의 각각 83.1% 및 83.2%를 이들 지역에서의 투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장강삼각주 경제구와 남방연해 경제구가 전체투자의 약 8% 및 7% 수준을 보이면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를 성·시별로 좀 더 나누어 보면 산둥성에 대한 투자(허가기준)가 55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전체의 36%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면서 그 뒤를 천진시, 요녕성, 흑룡강성이 잇고 있으나 산둥성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황하 중류의 산서성, 장강 중류의 강서성, 장강 상류의 귀주, 사천, 운남성, 남방 연해의 광서자치구 등에는 투자실적이 전무하거나 1~2건에 불과, 투자의 맹아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표 III-10> 우리나라의 권역별 대중국 투자현황
(1994. 6월말 현재)

(단위:건, 천달러)

		허가건수	허가금액	투자금액
총 계		1,549	1,327,618	707,266
동북경제구	요녕성	329	68,974	94,732
	길림성	159	77,524	33,228
	흑룡강성	111	85,898	51,019
	소 계	599(38.7)	332,396(25.0)	178,979(25.3)
환발해 경제구	하북성	42	30,681	16,512
	산둥성	416	472,305	235,563
	북경시	106	81,417	55,660
	천진시	163	187,040	101,492
	소 계	727(46.9)	771,443(58.1)	409,227(57.9)
황하중류 경제구	산서성	2	1,300	651
	섬서성	4	996	975
	하남성	5	1,424	404
	소 계	11(0.7)	3,720(0.3)	2,030(0.3)
장강삼각주 경제구	강소성	61	69,165	42,851
	절강성	17	6,569	3,853
	상해시	31	39,988	13,795
	소 계	109(7.0)	115,722(8.7)	60,499(8.6)
장강중류 경제구	안휘성	3	5,783	2,000
	강서성	1	130	130
	호남성	3	964	670
	호북성	4	970	510
	소 계	11(0.7)	7,847(0.6)	3,310(0.5)
장강상류 경제구	귀주성	1	754	754
	사천성	2	1,240	670
	운남성	-	-	-
	소 계	3(0.2)	1,994(0.2)	1,424(0.2)
남방연해 경제구	복건성	26	19,332	13,107
	광둥성	53	56,446	36,416
	광서자치구	2	15,025	25
	해남성	3	2,600	1,400
	소 계	84(5.4)	93,403(7.0)	50,948(7.2)

자료 : KIEP 지역정보센터

다. 투자업종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업종은 섬유, 의류, 신발, 가죽,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제조업 투자가 주종(1994년 6월말 기준 전체 투자건수의 89% 및 투자허가 금액의 90%)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은 1993년의 경우 962건에 890,604천달러로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다가 1994년도에는 상당부분이 감소현상을 보인 반면 건설업은 건수면에서는 9건에 불과하나 금액기준으로 90%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또한 제조업분야의 투자동향을 <표 III-12>를 통해서 누계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962건에 실제투자는 427,411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III-11>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투자(허가기준)

(단위:천달러)

	1993년말		1994년 6월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광 업	9	4,252	11	5,272
임 업	2	714	2	714
수 산 업	5	4,587	23	6,911
제 조 업	962	890,604	1,378	1,911
건 설 업	4	9,898	8	1,194,379
운수·보관업	5	6,535	7	16,098
무 역 업	7	2,380	20	7,801
금융·보험	0	0	0	7,975
기 타 업	38	40,935	99	0
부 동 산	1	17,018	1	71,450
총 계	1,043	976,923	1,549	1,327,618

자료 : KIEP 지역정보센터

<표 III-12> 한국기업의 대중국 제조업분야 투자
(1993년말 현재 누계기준)

(단위:개, 천달러)

	기 업 수(허가기준)			금 액 (실제투자)
	100만 달러 미 만	100만 달러 이 상	계	
제조업합계	840	122	962(100.0)	427,411(100.0)
음식료품	64	6	70(7.3)	16,155(3.8)
비금속광물가공	26	6	32(3.3)	19,085(4.5)
1차 금속가공	18	5	23(2.4)	9,530(2.2)
섬유·의복	211	21	232(24.1)	78,774(18.4)
신발·가죽	73	24	97(10.1)	61,968(14.5)
종이·인쇄	14	1	15(1.6)	2,010(0.5)
조립금속	98	23	121(12.6)	90,894(21.2)
목재·가구	42	-	42(4.4)	6,608(1.1)
기계장비	28	7	35(3.6)	17,028(4.0)
석유화학	54	10	64(6.7)	32,094(7.5)
기타제조업	212	19	231(24.0)	95,265(22.3)

자료 : KIEP 지역정보센터

2. 문제점

한국기업의 중국직접투자와 관련된 문제점은 중국시장 자체내의 거시적 문제점과 한국기업의 독특한 투자특성(지역·업종·독자기업 위주의 편중)에 기인하는 미시적 문제점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문제점 등을 구별할 수도 있다.¹⁸⁾

거시적으로는 급속한 정치·경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미시적으로는 관련 법규의 불투명성, 적용의 자의성 및 지방정부기구의 비효율과 부패와 같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과, 사회간접시설의 미비와 같은 기

주: 18) 홍택기 외 3인, 우리나라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방안, 1994.12, pp.126~131.

업투자와 직접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지역적 편중으로 중국의 다양한 개발 수요와 중국경제의 다이나미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투자는 산동성과 일부 동북 3성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급속한 임금상승, 노사분규 증가, 토지비용 상승, 내륙진출 곤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투자 메리트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중국의 최대 유치지역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하나인 중국 남방연해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이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뒤져 있다. 또 제8차 5개년계획 및 2000년까지의 장기 경제계획에서 새로운 개방·개발의 역점지대로 되어 있는 장강중상류 지역에 대한 투자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투자는 중국의 역점 개발지대를 벗어난 지역의 투자형태를 보이면서 중국경제의 강력한 다이나미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투자업종이 섬유, 신발, 피혁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중국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단기간에 경제개발을 성공시켜 경제를 선진국 문턱에 올려 놓은 귀중한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산업도 경공업은 물론 중화학공업 기반도 매우 탄탄하다. 물론 중국과의 경제교류 역사가 일천하고, 그동안 비수교 상태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에 많은 장애가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편중되어 중국투자에 있어서도 현지에서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또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도 없지 않다. 중화학공업 분야, 첨단기술을 배경으로 한 투자, 중국 현지에서의 자원개발형 투자 등 투자분야 및 업종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의 다양화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당 투자규모면에서도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경험심화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경험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중국투자는 중소기업 위주의 노동 집약형 소규모투자가 중심을 이뤄왔다. 그러나 임금, 토지사용료 등의 상승으로 단순히 싼 임금만을 겨냥한 투자는 연해지역에서부터 점차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상당한 대중투자 경험이 이제 축적된 만큼, 대기업들의 대규모투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개발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의 기반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된 문제점 이외에도 몇가지의 문제점 등을 들수 있다. ① 조업과정에서의 기업관리의 어려움 ② 경쟁과열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③ 중국진출을 위한 국내기업간의 과열된 경쟁 및 전략적인 선전효과를 노린 경제적 손익을 등한시하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의 문제 ④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노동비 상승, 환율평가절상 및 후발개도국의 진출로 인하여 약화되고 있는 점 ⑤ 외화부족 및 유통화폐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구상무역의 요구가 높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자재 수입이 곤란하여 가동률의 저하를 유발시키며, 인민폐의 불태환성으로 인하여 수출지향적 투자기업이나 외국관광객 대상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투자회수와 과실송금의 어려움 ⑥ 외환조정소를 이용하여 인민폐의 교환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상기업이 한정되어 있으며 적용환율이 공식환율보다 2~3원 가량 높은 점 ⑦ 임금·고용 및 노동력과 관련된 문제로서 합자기업 근로자의 고용이나 해고에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복잡한 임금체계가 존재하며,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고용과 관련되어 예상치 못한 비용(주택문제, 식량문제 등에 대한

보조금)이 발생하는 점 ⑧ 원자재와 설비의 공급과 관련된 문제로서 중국내의 공급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종종 높으며, 품질 또한 국제수준에 못미치며, 특히 합자기업 설립시 local contents(원자재와 설비를 일정부분 국내에서 공급받아야 할) 조항이 있는 점 ⑨ 전체시장규모는 크지만, 적은 개인소득으로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작은 점 ⑩ 기업인, 관료,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적 타성에 젖어 있고, 인치사회 위주의 사고방식과 법치사회의 합리성이 부족한 점 ⑪ 대중국직접투자 및 경제교류는 한국·북한·중국·대만의 국제정치경제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받는 점 ⑫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어려운 정치적 위험이 존재 ⑬ 한국과의 접촉 및 협상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단일화된 통로 및 정보교환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수 있다.

제4장 대중국 투자사례 분석

제1절 S봉제업체 투자사례¹⁹⁾

1. 대중국 진출동기

동 회사는 그동안 합작 형태로 섬유수출 및 제조업을 운영해 오다가 시장여건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독립하여 별도의 수출업체를 설립하였다. 국내의 수출교역 환경이 나빠지기 시작하던 시기에 동종 업종에 진출함으로써 처음부터 국내에 자체 제품공장을 가지기 보다는 해외공장 설치를 계획하였고, 해외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국내제품 공장을 잠정적으로 합작형태로 운영해 오다가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모두 청산하고 현재는 해외공장에만 생산을 의존하고 있다.

첫 해외투자 지역은 인도네시아로 1989년 11월에 투자허가를 받고 이듬해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두번째 해외투자는 베트남으로 1991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며, 실물투자 형태로 봉제미싱을 제공하고 생산을 책임지면서 투자분에 대해서는 임가공비의 일정비율(저율)을 장기간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여 일종의 생산합작, 임가공방식에 가깝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상해지역의 향진기업을 통해 임가공 방식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오고 있다.

이 업체로서는 중국에 처음 진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큰 관계로 생산효율의 달성에 성패가 달린 노동집약적 의류업종으로서는 적어도 확실한 내부통제력을 보장하는 독자기업이 초기 진출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 대로 동남아

주: 19) 백권호, 전게서, pp.25~40.

에 비해 리드타임(주문을 받아서 선적하기 까지의 소요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섬유봉제업종은 유행에 민감한 업종이어서 출시가 늦으면 상품성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동남아에 진출하면서 예상치 못한 긴 리드타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상 5개월, 베트남의 경우 3개월씩 걸리던 것을 중국에서는 2개월 반이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는 동남아에 비해 문화적 차이를 덜 느낀다는 점과 방대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의류산업의 경우 중국의 섬유원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원자재 조달에서 국내나 동남아에 비해 20% 정도 싼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결국 생산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라는 효율추구를 위해 중국에 투자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의 조달과 시장진출까지 전략적 변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은 필요한 시기에 전략을 전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통제력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독자기업은 매우 효과적인 초기적 진입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체적인 판단이었다.

2. 분석결과

자회사에 대한 통제는 현재 생산 및 일정관리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업은 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사는 본사의 집권적 통제를 계속 유지하되 현지공장의 운영 특히 생산부문은 궤도에 오르는 대로 현지인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노무와 회계경리는 현지의 실정을 고려하여 현지인에게 맡기고 있다. 내수영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가면营业을 포함하여 현지중심의 자회사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소유의 자회사를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은 본사의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회사가 본사 관련사업전체에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클수록 본사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은 확대된다. 자회사의 자율성 보장은 동 자회사가 다각화 전략차원에서 현지 시장중심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 또 다른 상황은 동 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공식평가가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업무의 계획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할 때 현지 자율과 본사의 집권적 통제가 모순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 자율에 맡기는 경영방침은 현지 자회사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이 취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소유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내부조정비용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특히 중국적 정치·사회적 특성하에서는 이러한 개연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성패는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원하는 가격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장기적, 외형적 성장에 대한 동기가 극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결정 방식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다. 본사와 자회사간 거래가격에 대한 본사의 통제력이 강할수록 자율적인 자회사 운영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와 자회사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본사의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력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자회사의 자율성은 본질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동 사례는 독자기업의 대환경 관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당초 독자기업이든 합자기업이든 어차피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부딪치는 상황은 해결방법이나 효과적인 해결방법의 모색과정에서 양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물론 여기는 천진이라는 지역적 특수성도 크게 작용했다. 동 사가 경험한 노사분규는 외부의 영향력이 기업경영내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적 정치사

회 환경 속에서는 독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외자기업의 경우에도 기업내부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압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기업전체에 외부적 압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내부의 갈등으로까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결방법도 합자의 경우는 갈등관계가 합자 쌍방이면 파트너와 협상을 하거나 현지정부의 중재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그밖에는 중국측 파트너가 현지정부와 협상을 해결하면 된다. 독자의 경우에는 외형적인 협상상대는 노조대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나타날 수도 없는 현지정부측과 비공식적이고 무형의 협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평상시의 외부의 압력은 노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중국의 전반적 정치적 환경이 보다 경색되는 시기에는 기업내 당조직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어 기업경영에 간여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동사는 중국진출시 합자보다는 단독진출을 선호하게 된 것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통제력의 확보와 조기시장 진입의 이점,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화,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적게 받는 요인이었는데 중국현지 내부실정에 어두운 나머지 기업운영이 노조나 외부(중국의 정치, 사회적 요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단독진출에 의한 자회사통제가 비능률적인 면도 있었고 단독투자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제2절 S사 컬러 TV 합작공장 투자사례²⁰⁾

1. 합작투자의 동기

국내 굴지의 종합무역상사인 S사는 1980년대 초부터 중국의 잠재적 시장과 냉

주: 20) 백권호, 전게서, pp.67~90.

전체제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하에서 한중간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중국시장개척팀을 설치 강화해 나갔다. 약 10년간 직간접적인 대중국 경제교류를 추진해온 S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홍콩 현지법인을 강화하여 중국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되었다. 그러던 중 1988년 9월 거래선인 홍콩 SOLID사 측에서 동 합자건에 대한 협의제안이 날아 들었다. SOLID사의 회장은 필리핀 국적의 화교로 당시 이미 중국내에 4개의 TV 및 VTR 합자공장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현재 합자대상인 W사이다.

SOLID측은 W사의 자기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대신 S사측에게 기술일부 제공 및 수출마케팅을 전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S사가 동 사업에 진출을 결정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는 중국에 비교적 소규모로 투자함으로써 대중투자와 관련된 노우하우 및 중국 내수시장 구조 및 마케팅에 대한 노우하우를 축적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동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으로는 중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공급력을 확보하고 선진국 시장에서의 우회진출을 가능케하며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있는 저원가 전략을 유지하여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데에 두었다. 한편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을 염두에 두고 높은 마진이 확보되는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룹내 전자전문 제조업체의 경쟁력있는 주요부품의 안정적 수요처를 개척하는 수직적 통합의 효과도 고려하였다.

한편 홍콩에 인접한 중국의 특구지역을 투자대상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제3국과 투자조건을 비교해 보면 현지 부품조달의 가능성이 크고 인력자원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으며, 내수시장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특별히 특구지역을 선정하게 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개방 이후 홍콩의 전자부품업체가 지리적 인접성과 선점자의 이익을 확보하며 동 특구지역에 대거 진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 특구를 포함한 광둥성 지역이 이미 중국의 전자산업 중심으

로 자리잡고 있어 부근에서 부품이나 자재의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밖에도 중국에서 가장 먼저 중앙에서 적극적 지원하에 건설된 개방도시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이나 기타 사회간접자본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지역 선택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S사는 현금출자에 의한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였는데, 중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합자회사의 지분변경 및 증자형성이 된다. S사가 지분참여 형태로 W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기존의 합자관계에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주주인 SOLID측이 투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지분참여 없이 생산관리 및 기술공급 형태로 동사의 경영에 참여해 온 장풍과 S사가 각각 114만 달러씩 동일한 규모를 투자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지분의 조정은 S사가 해외 마케팅과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고 장풍측이 생산관리 및 기술공급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분석 결과

S사의 동 투자사업을 환경-전략-구조-성과의 틀속에서 분석해 보면, 우선 무엇보다도 환경의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출시장이나 내수시장에서 공히 매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전 3사가 연간 500만 대를 생산해 내고 있는데 비해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100여개 기업들이 500만 대를 생산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과다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수출시장 역시 최저가품 시장에 주력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설사 추가적인 경쟁력 확보가 되더라도 미국에 의해 반덤핑에 제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환경에 대한 대응은 저원가를 위한 부가가치 사슬의 합리적 재배치와 시장환

경의 능동적 변경의 두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곧 5자 합작의 문제이다. 소수지분에 의한 5자 합작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S사의 담당자도 가장 큰 문제점을 다자간 합작으로 지적하고 있다. 절대 대주주가 없는 다자간 합작은 각자가 동 사업에 대한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즉 융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퇴출장벽이 높지 않아 기회주의적 속성이 발생하기 쉽고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협상력이 팽팽히 맞서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구나 시장현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추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시장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입을 늘리는 전략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동 합작사업에 대해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구조의 또 다른 측면은 현지 책임자 파견 문제이다. 현재 S사는 본사 과장급이 현지 부사장으로 나가 있다. S사로서는 전략적 중요성이나 일의 특성으로 보아 30대 중반의 과장급 임명이 적절한 인사라 할 수 있으나, 현지 합작사의 입장에서는 파트너사 파견 간부간의 연령 격차가 문화적 이질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직이 아닌 전반적 관리분야에 1인을 파견하는 것은 지분구조와는 맞을지언정 실제로 현지에서 행사하는 통제력과 통제를 위한 정보의 장악 및 관리에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관리의 명수인 S사가 현지 합작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의 분담이라는 문제점이 초기에 중요한 효율적 조직구조 및 인사배치와 교육훈련에 실패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1인 관리시스템은 통제불능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몇가지 중요한 상황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정점창제도와 함께 I/L제도의 개혁 및 1994년까지 관세개방 등 1993년 GATT 가입을 위한 제도개방을 곧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중국에서 CTV산업은 이미 성숙산업이고 공급포화 상태이다. 결국 경쟁

이 치열하기 때문에 고급화와 차별화가 경쟁의 핵심이다.

둘째, 현재의 상황은 W사의 생산기술 수준하에서 본국에서 자체수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타당성이 없다.

세째, 상사의 본질적 능력은 판매하는 것이다. 결국 팔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사의 동 자회사에 대한 의존도는 관련 제품의 수출기준으로 10%, 3국간 거래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합작을 한 것은 심천 전자집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기대이다. 심천 전자집단 역시 동 자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S사는 당초 동 자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제3국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 수출전략을 시도하였다. 당시의 주요 전략목표시장은 중동이었으며, 브랜드는 「YOCO」 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현재는 「DYNASTY」 라는 브랜드로 자사 브랜드 전략을 재시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전략은 회로의 개발에 의한 자체 모델개발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첫번째 시도의 실패도 자가모델개발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자가모델의 개발 성공여부와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여부가 S사의 동 자회사에 대한 통제전략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하튼 S사로서는 일단 자체회로개발에 의한 모델개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성공여부가 지분전략을 포함한 동 자회사에 대한 통제전략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사인 S사가 설사 자체회로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측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며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는 상사가 제조업체에 주도적으로 생산기술을 투입하는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S사는 단독투자기업의 단독투자에 따른 대규모 위험요인 때문에 진출하게 되었으나 S사간의 합자형태와 중국투자 성공의 핵심성공 요소인 자체브랜드 개발

의 성공과 현지화 면에서 처음에는 실패를 하였으나 나중에 전략을 수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비교적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중국내수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제3절 투자사례 분석결과의 시사점

1. 내수시장 보호 메카니즘

중국의 외자도입 정책 및 제도도 역시 다른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 노하우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면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산업, 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외자도입 성과측면에서는 수출효과와 고용효과 이외에도 기술도입 및 그 연관효과를 특히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제도적 메카니즘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내수시장 보호장치는 직접적인 수단과 간접적인 수단으로 구분되는 다단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인 수단은 인허가권에 의한 내수시장 진출통제를 들 수 있다. 인허가 단계에서 외국인 기업측이 제안하는 투자방식과 도입기술 수준 및 현지화 정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시장 참여(혹은 수출의무 비율) 정도를 결정하거나 투자허가 부여를 결정한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측이 요구하는 내수시장 개방정도에 따라 반대급부로 상응하는 특정한 투자방식이나 이전 기술수준 혹은 조건 그리고 현지화 정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외자기업에 대한 내수시장 개방도가 크면 클수록 기술도입 조건을 까다롭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연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외자기업들이 현지조달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한편 투자방식에 대한 허가도 인허가 단계에서 내수시장 개방도와 연계하여 통제하고 있다. 간접적인 보호수단은 외자기업 진출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

출을 유도하거나 현지화 비율을 가능한 한 빨리 높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2. 중국정부(혹은 현지정부)의 경영간섭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간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정부의 경영간섭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간여방식의 측면이고 둘째는 간여대상의 측면이다.

우선 간여방식을 정리해 보면 경영참여 동등권 주장(예컨대 이사장의 중국인 임명 등), 지분률에 의한 지배, 주요 의사결정의 완전합의제 도입, 부책임제의 도입, 합자기간의 제한, 동일직급 동일수준 임금지불 요구, 당조직에 의한 간섭 등이 있다.

간여분야를 보면 현지 정부의 간섭이 문제가 되는 간여분야에 대한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고용 및 해고와 임금에 대한 간여이고, 그밖에 노무관리에 대한 간여,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간여가 있으며, 다양한 요금이나 수수료 징수, 정치적 간여 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3. 집중도가 낮은 산업조직과 경쟁환경

중국의 투자환경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낮은 산업 집중도와 이에 따른 경쟁환경의 이질성이다. 사례에서 가전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생산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례의 대상기업 뿐만이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외자계 기업이나 국영기업들도 평균적으로 작은 규모의 생산체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CTV의 경우 중국의 4사 집중도는 한국의 3사 집중도 93%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31.2%에 지나지 않는다.²¹⁾ 규모의 경제가 크게

주: 21) 日中經濟協會, 中國の産業構造と經濟發展戰略, 東京:日中經濟協會, 1990, p.138.

작용하는 장치산업이나 기간산업의 경우 집중도의 현격한 차이는 경쟁환경의 이질성을 가져 온다.

4. 중국 노동시장의 정체성

중국의 노동시장은 정책과 제도에 의해 그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과 같이 방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민사회복지나 사회안전 유대차원에서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노동시장의 정체성의 원인을 살펴 보는 것은 투자진출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노동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호구제도와 당안제도 및 차별적인 인사취업제도 등의 제도적 제약장치에서 비롯된다. 호구제도는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도시호구와 농촌호구로 분류되며, 도시와 농촌 사이는 물론 도시와 도시 사이에도 호구의 이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당안이란 중국특유의 신분관리제로서 소속기관이나 직장에서 보관하는 일종의 신분조서 같은 것이다. 이 당안은 중학교 입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생을 따라 다니게 되는데 입시, 취직, 전직, 승진, 유학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속기관의 인사부문이 관리한다.²²⁾ 인사취업제도는 두가지 제도로 차별화되어 있는데, 일반 노동자 농민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무직 화이트 컬러로 통상 간부직으로 나뉜다. 전자는 노동부가 관리하고 후자는 인사부가 관리하고 있어 관리제도 자체를 차별화하고 있다.²³⁾

이러한 제도들은 지역간 이동(호구이동)과 기업간 이동(당안이동)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신분변화에 대한 위협(중국의 인사취업제도에서 이

주: 22) 당안에는 개인의 일반경력 사항에 민족, 출신 성분, 본인 성분(소속계급), 소속정당, 사회관계(직계친족, 친구관계), 해외관계(해외화교, 외국인 관계) 등이 속속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은 볼 수 없다.(일중경제협회 회보, 1991년 8월호, p.24)

23) 통상 노동계약제라 함은 노동자 취업제도만을 말한다.

탈) 때문에 간부직이나 경력직이 이동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제도도 노동력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²⁴⁾

5.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상관행의 차이

소위 중국식 상관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첫째는 중국이 경제의 각 부문별로 전반에 걸쳐 시장화를 추진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법적·제도적·규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상관행의 차이는 내수시장 진출전략은 물론이고 중국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최근에는 시장화와 유통 부문의 개혁으로 통상적인 시장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생산자와 공급자, 생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유통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거래는 여전히 관계적 거래의 특성이 지배적이고, 계약취소 및 불이행, 미수금 사태 등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동종업자들이 외자기업에 대해 담합하여 원료조달 등을 방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6. 정보 시스템의 폐쇄성

중국의 정보시스템은 매우 폐쇄적이어서 십수년간의 대중국 교역 및 기술협력 을 해 온 일본계 기업들조차도 투자시에 2년을 소비하였다던가 또는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던가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또 미국계 기업의 사례에서도 당초 걱정했던 사회

주: 24) The China Business Review(Sep-Oct, 1992)에 따르면 미국계 중국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복지 관련문제는 주택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자본의 문제는 오히려 준비단계에서부터 노출되어 있는 문제라서 사전에 주의하고 준비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회제도나 관습, 정치적 환경변환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소위 소프트 환경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곤란을 겪었던 경험을 슬회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들어가기까지는 열광적인 환영을 하다가 일단 투자가 실행되고 나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달라지는 분위기에 당혹과 실망, 낭패감을 느꼈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미처 예기치 못한 중요한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된 사실에 당황하여 관련되었던 협조자에게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진작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물어보지 않아서...”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의 정보전달 체계가 종적인 구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적구조 속에서도 정보의 교환관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가, 현지를 방문하거나 중국인을 초청했을 때 흔히 보듯이 현장기록을 제도적으로 습관화시켜 놓고 있어 정보제공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보전달 체계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은 공공매체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혈연 지연 혹은 다른 비공식적인 특수관계 등을 통한 비공식적 정보전달 체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정보 자체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언론매체와는 달리 중국의 언론매체는 체제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7. 환경평가와 전략선택의 중요성

앞의 사례에서는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인식이 부족한 사례와 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도 전략선택 과정에서 확실성을 높여간 두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 가전산업 투자사례의 경우는 이미 성장산업으로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는데 뒤늦게 진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봉제업종의 사례는 기존의 수출선과 원자재 조달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공장만을 중국 현지로 이전하여 내부효율만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방식을 택함으로써 초기이기는 하지만 성과를 거두게 된 사례이다.

S전자의 사례는 제품화 전략에서도 다소 완착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것은 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CTV 사례의 경우는 투자규모로 보아 파일럿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룹차원에서 향후 본격적인 중국투자를 위한 학습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그 유용성은 매우 크고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여부 관점에서만 본다면 제조업체가 아닌 상사의 제조업 투자가 통상 상사의 해외영업 담당을 조건으로 하는 소수투자지분 수준을 넘어서서 과잉투자되고 있다는 점은 해외직접 투자의 원론을 무시한 측면이 있으며, 수출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화 전략이 그룹내부의 관계적 거래의 특성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분참여 형식의 투자도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 행사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 파트너들의 정치경제적 학력관계에 의해 조직 및 인사구조가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소수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대하는 효과적인 통제력을 실제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분을 19%는 과다하게 높은 지분을 갖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자회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통제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두가지 사례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다자간 합작의 어려움인데 파트너가 많아지면 목표의 일치나 병존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내부 경영관리의 비효율성은 야기시킨다.

8. 생산기술 중심 경쟁력의 한계

사례에서 나타난 우리 기업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국진출시에 가지고 들어가는 기술수준이 그다지 큰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들이라는 점이다. 해외투자이론에서는 독점적 우위 기술(통상 설계기술을 포함)과 비교우위적인 기술(통상 생산 조립가공 기술이 중심)에 의한 투자의 두가지 줄기가 있으나, 후자는 중국에 가서 후발개도국인 현지국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 업종이라는 숙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투자국에 대한 협상력이 크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투자실행 이후의 협상력은 급격히 약해지는 것이 동 부류의 투자사업의 취약점이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일본이 투자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독점적 우위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독점적 우위와 비교우위의 차이는 사후적 협상력을 얼마나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즉 자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술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가 여부와 이전의 용역성 정도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력과 기술특성의 차이는 전략과 원가의 투입 그리고 투자방식과 통제구조 등 우리 사례분석의 모든 구성개념들과 그들 사이의 관련관계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중국측이 제시하는 사업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의 차이

중국측이 이미 자체적 계획에 의해 외국인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중국측에 의해서 초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와 방향 심지어 자금 투입규모까지 확정된 것들이다.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합작하게 되는 경우에 대체적인 협상의 틀이 사전적으로 잡혀져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는 우연한 환경변화를 맞아 불가피하게 전략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략의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처음 협상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선 지역선택시에는 지역별 상관행, 省정부의 인맥, 지역사회의 노동수준, 노동조합의 영향력 여부, 지방정부의 영향력 정도를 주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진입할 필요가 있고, 업종의 선택시에도 중국의 경제 정책 전반, 외자유치 장려분야, 기술습득분야, 산업구조 조정에서 시급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합작과 단독투자에 대한 형태결정은 투자대상의 규모, 위험, 기업의 전략 등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업에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합작관계에 의해 형성된 조직구조와 내부 정치구조 및 과정을 나중에 참여하는 기업이 개혁 개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확실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완벽한 조직 및 인사 개편을 단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지분으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당초의 기업전략과의 적합성 문제때문에 이 전략을 택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제5장 대중국 투자진출 확대방안

제1절 대중국투자의 기본전략

우리기업의 대중국 진출은 새로운 시장과 자원의 확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제분업의 확대, 한·중 양국 경제의 경합·보완관계 등을 고려한 전략적 목표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대중국 진출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는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하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일단 중국진출이 결정되면 투자목적은 분명히 하고 원자재 및 부품조달, 생산, 판매의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이 진출목표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정의는 투자지역의 선정과 사업계획 및 내부조직구조의 설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가전략적 차원에서는 대중국 진출목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전략의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업종별, 지역별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금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중국 투자는 섬유, 신발, 피혁, 완구 등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중소기업 중심의 소규모 투자에서 탈피하여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유통, 건설 등 서비스 분야로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전전자 교환기(TDX), 중형 항공기, HDTV,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산업협력을 자원 등 여타 분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이전하고 핵심기술 분야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공정간 분업과 국내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저가품을 생산하는 제품차별화 분업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째,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 또는 수출지향적 투자에서 벗어나 내수지향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과거 중국진출의 가장 큰 유인이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이에 따른 낮은 생산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구매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거대한 잠재시장이라는 점이 새로운 투자유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네째, 현재 산둥성과 동북 3성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지역을 장강유역과 화남지역, 더 나아가 연강 및 내륙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투자전략을 차별화하고 중소기업의 단독진출이 어려운 지역은 유사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나 중소기업의 연합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발해지역은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경제협력 차원에서도 주요 투자거점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전체를 놓고 볼 때 장강유역은 중국진출의 최대 승부처로 남아 있다. 장강유역은 상해 포동개발과 삼협댐 건설을 계기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장강삼각주와 연강지구를 개방대로 하고 장강유역의 광활한 배후지를 갖고 있어 중국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와 연강지역은 서방기업들의 진출역사가 일천하고 동남아 화교들의 진출도 최근 2~3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기업의 진출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광둥성, 복건성 등 화남지역은 임금과 물가, 지가가 폭등하고 있고 홍콩, 대만, 일본, 구미기업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으나 이 지역의 소비시장 진출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우리가 새로이 주목해야 할 투자대상지역은 최근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연강 및 내륙지역이다. 중국은 1992년에 장강연안의 5개 도시와 국경 연해지역의 4개 성부, 내륙의 11개 성부를 추가로 개방, 내륙지방의 주요 도시를 대부분 개방하였으며, GATT 가입협상과 관련하여 GATT 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특구의 우대정책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외국자본의 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연강지역 및 내륙지역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투자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각 지역의 진출상 잇점과 불리한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진출의 잇점을 과대평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과소평가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보와 현장정보의 갭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지비교에서 임금코스트의 변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은 오류이다.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 하드웨어가 좋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투자환경과 영업환경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제2절 대중국투자의 단계적 전략

1. 단기 전략

가. 중국 각 성·시 투자환경정보 보급 강화

앞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각 성·시가 각각 커다란 시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광대한 국토를 지니고 있으며, 또 우리와는 수십년간 단절되어 있었던 만큼 한 기업이 종합적인 투자환경 정보

의 토대위에서 투자적지를 찾기에는 역부족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존 정부관련 기구나 경제단체의 중국관련 조직(예컨대 KIET, KOTRA, 대한상의의 한중민간 경제협의회, 무협의 한중교역투자상담실)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이들 조직을 통해 구체적인 중국의 각 성·시에 대한 투자환경을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나. 중국 현지 통상 전문요원 증원

우리의 대중교역 및 투자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중국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통상전문가(예:상무관, KOTRA 지사 등) 증원이 요망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대중진출이 환발해지역이나 동북 3성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부 및 내륙지역으로도 활발하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 하겠다.

다. 한·중 산업기술 교류 수요 조사

앞으로 우리의 대중투자는 단순 노동집약형 투자위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기술집약형 투자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 중에서 상호 보완성이 강한 산업기술에 대한 교류가능성 조사가 정부, 연구원, 업계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술수요의 개발을 위해 한·중 테크노마트 등을 실시, 기술정보 유통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긴요할 것이다.

라.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한·중 경제협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에너지·자원분야에서의 협력이 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과의 에너지·자원 협력방안에 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중국과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원협력 조사단 파견 등 자원관련 기관의 대중국 업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 수출입은행 자금 및 해외투자보험의 탄력적 운용

한·중 경제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연불수출 등을 위한 수출입은행 자금이나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시장은 잠재력이 크나 개척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기업의 투자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들 자금이나 보험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이 요망된다.

바. 재중한국상회 확산 및 지역별 진출업체협의회 활성화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최근 중국진출은 러시를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현지에서의 투자기업을 주축으로 한 재중한국상회를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거나 진출기업체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상호 정보교환의 원활화, 현지 중국 당국과의 공동교섭력 강화 등을 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현지에서의 우리 업체들 사이의 무분별한 과당경쟁 방지, 대중 투자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후발진출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 전략

가. 산업협력위원회 활동의 지속적 확대

현재 한·중 산업협력은 자동차, TDX, HDTV, 중형 항공기 등 4개 우선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또 지난 10월말 이봉 중국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원자력 협정도 체결,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원자력 활용분야에서의 기술진출의 길도 열리게 되었다. 한중 사이에는 상호 강한 경제적 보완성이 있는 만큼 산업협력위원회의 활동범위를 계속 넓혀 가는 노력이 기대된다. 이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양국간 산업협력의 중장기 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국내전문가의 중국 연수 및 조선족의 국내 연수 강화

한·중 경제교류의 심화를 가능케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중국 관련 인적자원의 확충이다. 이를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하나는 현지연수의 확대이다. 우리측 인사의 중국에서의 연수와 중국내 우리 동포(조선족)의 한국연수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대중국 경험추진의 첨병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수십년간 조국과의 단절로 사고방식이나 기술수준, 관리능력 등에서 우리와는 상당히 큰 갭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축소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아울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의 훈련프로그램에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ODA 자금 등)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중국 주요 성·시에 Korea Business Center 설립 추진

우리 기업의 대중투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중국 현지에서의 지사, 사무소 운영에는 사무실, 주택 등의 공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임대차 가격 급등, 구득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진출기업 상호간의 정보교환, 현지 중국인들과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한국 비즈니스 센터를 중국의 중요 도시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계 공동의 사업인 만큼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든지 또는 수개 업체가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업 진출방안 마련

중국진출의 새로운 지평의 하나는 중국 내수시장에의 참여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이미 백화점 합작진출 등으로 활발한 투자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백화점, 유통센터 등도 중국진출 전담반을 편성, 중국유통

업 진출가능성 및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방대한 지역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업계 공동의 대응도 요망된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중국은 무역에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제3의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고, 해외직접투자에서는 우리나라 제1의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역경제의 불려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요소부존상태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경제는 상호보완의 정도가 높으며, 따라서 최근 무역, 직접투자, 기술도입 및 이전 등 경제교류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 전반에 관한 이론, 특히 대중국 투자이론을 살펴보고 중국의 경제현황, 외자도입정책,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투자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발견하여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전략을 강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가가 해외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를 지칭하는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로는 원료 및 자연자원의 확보, 해외시장의 확보, 수출 장애요인 회피방안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동기로는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투자, 잠재력 시장확보를 위한 투자, 자원확보를 위한 투자로 유형화 시킬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동기로는 무역확대형 동기로서 우리나라 경쟁력 상실업종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제3국 시장진출 동기와 중국의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산효율 확보형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1979년 3중전회와 개방정책,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특화된 지역개발 정책 등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 한국

은행 허가기준으로 506건, 3억 5,000만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한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밀성,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지속적 개발의 필요성, 한국의 개발경험,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및 국제화 추세 등으로 보아 대중국 투자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한편 대중국 투자지역으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환발해지역과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업종으로는 섬유, 의류, 신발, 가죽,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제조업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국기업의 중국직접투자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급속한 정치·경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법규의 불투명성, 적용의 자의성 및 지방정부 기구의 비효율과 부패와 같은 제도적·구조적 문제점과 사회간접시설의 미비와 같은 기업투자와 직접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다.

두개의 대중국 직접투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이 대중국 진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국시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수시장보호 메카니즘으로서 직접적인 수단과 간접적인 수단으로 구분되는 다단계적 특성과 둘째, 간여방식과 간여대상의 측면에서의 중국정부의 경영간섭과 셋째, 집중도가 낮은 산업조직과 경쟁환경의 이질성 네째, 호구제도와 당안제도 및 차별적인 인사취업제도 등의 제도적 제약장치와 같은 중국 노동시장의 정체성 다섯째,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상관행의 차이로서 이는 중국이 경제의 각 부문별로 전반에 걸쳐 시장화를 추구하는 과도기적 단계와 법적, 제도적, 규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타 요소로서는 중국 정보시스템의 폐쇄성, 환경평가와 전략선택의 중요성, 생산기술 중심 경쟁력의 한계, 중국측이 제시하는 사업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의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기본전략과 단계적 전

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전략으로는 우리기업의 대중국 진출은 새로운 시장과 자원의 확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제분업의 확대, 한·중 양국 경제의 경합·보완관계 등을 고려한 전략적 목표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 중심의 소규모 투자에서 탈피하여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유통, 건설 등 서비스 분야로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조립라인을 중심으로 이전하고 핵심기술 분야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공정간 분업과 국내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저가품을 생산하는 제품차별화 분업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 또는 수출지향적 투자에서 벗어나 내수지향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네째, 현재 산동성과 동북 3성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지역을 장강유역과 화남지역, 더 나아가 연강 및 내륙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 전략을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으로 구분하면 단기전략으로는 중국 각 성·시 투자환경정보 보급 강화, 중국 현지 통상 전문요원 증원, 한·중 산업기술 교류 수요 조사,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수출입은행 자금 및 해외투자보험의 탄력적 운용, 재중한국상회 확산 및 지역별 진출업체협의회 활성화 등이 있다. 그리고 장기전략으로는 산업협력위원회 활동의 지속적 확대, 국내전문가의 중국 연수 및 조선족의 국내 연수 강화, 중국 주요 성·시에 Korea Business Center 설립 추진,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업 진출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기업은 이제까지의 중국시장 진출을 노동집약적이고 단순가공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하이테크를 요구하는 중화학공업 투자로 방향

선회가 필요하며 특정지역 편중, 특정업종 편중에서도 벗어나 다각적인 업종과 내륙지역으로도 투자를 활성화하되 중국내부의 시장사정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짧은 시간내에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김기태, 이종원, 김철환,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박영사, 1992.
2. 김주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실태분석과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3. 김시중, “중국경제의 특성과 외국인직접투자의 문제점”, 지역경제, KIEP, 1994.8.
4. 민상기, 한국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한울, 1984.
5. 백권호, 대중국투자 애로사항과 대응전략,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 세미나자료, 1994. 9.
6. 백권호, 투자사례로 본 대중국 투자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12.
7. 안동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분석과 전략적 대안”, 해외진출기업의 지역별 경쟁전략, 대한상공회의소, 1993.12.
8. 안동규, “중국과 한국간의 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연구집, 1992.
9. 최수웅,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9.
10. 황천화, “중국 경제발전의 대외개방”, 경제지리, 1993, 9월호.
11. 홍택기 외 3인, 우리나라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방안, 1994.12.
12. 대한상공회의소, 해외진출기업의 지역별 경쟁전략, 1993.12.

II. 외국문헌

1. Aharoni.Y.,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Harvard Univ. Press, 1966.
2. Dunning.J.H.,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George Allen Unwin, 1981.
3. Knickerborker.F.T., Oligopolistic Rea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Univ. Press, 1973.
4. Kindleberger, American Business Abroad:Six Lectures on Direct Investment, Yale Univ. Press, 1969.
5. Kojima, Direct Foreign Investment, Praeger, 1978.
6. Mazzolini.R., Government Controlled Enterprise, John Wiley & Sons, 1979.
7. Ragazzi.G., Theories of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MF Staff Papers, 1973.
8. Vernon.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66.
9. 丸山伸郎編, 長江流域の經濟發展, アツア經濟研究所, 1993.5.
10. 日中經濟協會, 中國の企業改革, 1984.
11. 馬洪, 經濟管理, 1992.11.

ABSTRACT

A Study on the Launching Strategies of Direct Investments to China by Korean Enterprises

Kim, Hyoung-Mook
Major in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economic corpo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sharply increasing since late 1980's, China becomes the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of Korea, next to U.S.A and Japan, and the largest host-country of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direct investments to Chiana by Korean enterprises are growing so fast that more studies are required on why and how the direct investment to China should be implemented.

This study is one of those efforts to suggest some launching strategics of direct investments to China.

The main incentive of Korean companies to invest in China is to increase its exports to other countries. This can be possible by reducing its production cost through inexpensive wage, but excellent guality, of Chinese laborers.

There also exist some problems in the direct investments to

China. There are uncertainty due to rapid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unclearness of related regulations, inefficiency and corruptions of some local governments, and shortage in infra-structures. There are other problems in operating joint investment companies, such as excessive protecting mechanism for domestic market, management interfere by local government, differences in culture, etc.

The basic strategies of Korean enterprises to invest in China are diversification in its investment fields, discrimination in product qualities between goods produced in China and those in Korea, emphasis on penetrating Chinese market, and expansion in its investment area to inland provinces. A step-wise plan is required to implement these strategies.

In the short-run, we need more information about investmental environment in provincial level, training local specialists, and institutional supports in financing and insurance. In the long-run, there should be more corporations with Koreans living in China and Korea Business Centers should be built in major provinces and cities.